목포 삼학도~내항 잇는 '해상보행교' 추진

시, 김대중노벨기념관·근대역사문화공간 등 연계
원도심 관광 루트 연결 … 도보관광 활성화 기대

목포시가 목포내항과 삼학도를 해상보행교로 연결하는 '삼학아트교'(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목포내항과 삼학도를 걸어서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는 연결로를 마련함으로써 목포 관광을 점에서 선으로, 면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목포내항은 목포의 역사와 매력이 응축된 근대역사문화공간과 해산물 상가 등이 인접해 있는 하나의 관광권이다.

삼학도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요트마리나, 공원 등을 찾고 있는 관광권이다.

하지만 목포내항과 삼학도는 바다가 사이에 있어 오가기 위해서는 삼학로로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선거리는 가깝지만 동선이 'ㄷ'자인 탓에 보행거리가 길고, 단절돼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때문에 오래 전부터 목포내항과 삼학도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해상보행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상보행교의 편의는 수많은 관광객이 목포내항과 삼학도를 자유롭게 오가는 목포항구축제의 부유식 해상보행교에서 이미 확인됐다.

시는 지난 1월 해양수산부에 이와 같은 여론을 전달하며, 설치를 건의했다.

시는 해상보행교가 목포내항, 삼학도, 유달산 등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광객 편의와 색다른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바다로 분절된 원도심 관광권을 하나의 도보관광권으로 구축하는 한편 근대역사문화공간, 친수공간, 문화전시시설, 숙박시설 등을 하나의 면으로 형성하면서 관광 시너지를 증폭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목포 관광 전체로도 효과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화광장~갓바위~삼학도~대반동을 잇는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과 도보관광이 모토인 관광거점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학아트교는 도보관광 활성화의 가교가 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해상보행교를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도시답게 멋진 아트교를 설치해 삼학도의 전설인 유달장수와 삼학선녀를 연결하는 오작교로 스토리텔링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협의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나주시 '출산 친화'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중복지원 가능
산후조리·신생아 양육 돕는 건강관리사도 파견

나주시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을 돕는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고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준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유사사업으로 분류돼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18일부터 2개 사업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신청 범위도 '15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했다.

건강관리사 파견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단태·쌍태 등), 출산순위(첫째·둘째아 등),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5~25일)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나주시보건소와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최대 1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신청 결과는 유선과 이메일로 안내하며, 각 출산가정에서 표준·단축·연장형 등 서비스 기간을 선택해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서현승 나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진도군, 어린이 급식소 순회 교육

진도군은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 지원을 위해 위생·안전·영양 관리 순회 교육을 하며 균형잡힌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함평엑스포공원 VR 체험장 22일 개장

롤러코스터·퓨처바이크 등 체험…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짜릿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VR(가상현실)체험장이 '나비의 고장' 함평에 문을 연다.

함평군은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장이 오는 22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VR체험장은 롤러코스터, 퓨처바이크, 드론, 우주여행, 해저탐험, 패러글라이딩 등 가상현실 12종과 스크린사격, 스크린축구 등 AR(증강현실) 2종으로 구성 돼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월요일 정기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1게임 4000원, 3게임 1만원, 5게임 1만5000원이며, 각 프로그램은 3~4분 정도 소요된다.

함평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 받은 도민은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 할 수 있다. 단 신장 110㎝ 미만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나비대축제 기간이 맞물리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험장 내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엑스포공원 내 VR(가상현실)체험장. 〈함평군 제공〉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정원 조성

순천시, 시민 참여 확산

순천시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최근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30만 정원도시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및 시설 3곳에 옥상정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 데이지 등 6종 2550본의 초화류를 식재했으며 어울림정원 팻말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정원을 만들어가면서 정원도시 순천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구성원의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계절별 어울림 정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참여 단체는 SNS 등을 이용하여 계절별 정원의 모습을 홍보하면서 일상에서 정원을 누리는 30만 정원도시 조성에 시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관계자들이 순천시 구성원으로서 어울림 정원 조성에 함께 참여하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계절별 정원을 조성할 때마다 함께 하고, 함께 가는, 정원도시 순천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보건의료원 직원들 3년째 코로나19 대응 '올인'

구례군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며 3년째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상담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해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구례군은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3년째를 맞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감염 차단과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첫 확진자 발생과 함께 군 보건의료원은 선별진료소를 즉시 설치·운영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전남에서 두 번째로 설치 가동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원 전 직원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한정된 방역·의료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중증도 분류, 병상 후송,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지도 관리, 거동불편자 방문 검체 등 확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보건의료원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었지만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주일보 70 창사 70주년

2022년,
한전은 안전을 위해
한 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작업 중에는 전기 공급을 잠시 멈추고,
다양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고,
모두를 살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모두를 지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